제4장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라

도 입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데는 자녀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자녀교육은 옛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직업이 옛날처럼 사농공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므로 각자가 노력해서 생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도 직업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해진 신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곡선생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기위해 소개하는 자녀 교육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여 성공하기 위한 공부보다는 요즘말로 주로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사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지식을 쌓는 데 온 힘을 기울인 나머지 인성교육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성교육만큼 급한 것도 없다. 지식공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만, 인성교육은 때를 놓치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成人)이 되어 기본적인 예절과 바른 습관을 익힌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오죽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생겼겠는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식만 쌓은 교육은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된다.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접근할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장의 모범이 으뜸이다. 그래서 가장의 수기(修己)가 으뜸이고 다음으로 아내가 바르게 되고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순서를 삼았다. 이 장에서는 태교(胎敎)와 가르치는 순서를 소개한다.

본 문

[소학/열녀전]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옆으로 누운 채 잠자지 않고 비스듬히 앉지 않았으며, 한 발로 서지 않고 맛이 야릇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바르게 잘라지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않았고,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면 앉지 않았다. 나쁜 색깔은 보지 않고 음란한 소리는 듣지 않았으며, 밤이면 장님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이같이 한다면 곧 자식을 낳을 경우 그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다.

〈주석〉 진씨가 말하였다. "부인이 임신하였을 때에는 잠자는 일, 먹는 일, 앉는 일, 보는 일, 듣는 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하나 같이 모두 다 옳아야만, 자식을 낳으면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학/예기]

자식을 낳으면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고르되,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삼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적게 하는 이를 골라서 그를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

〈주석〉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유모가 선량하지 못하다면 그 집안의 법도를 폐하고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가 길러낸 자식도 그를 닮아 같은 종류가 되게 한다."

[소학/예기]

나이 여섯 살이 되면, 수(數)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치고, 여덟 살이 되면 문을 출입할 때나, 자리에 앉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웃어른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여 비로소 사양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 세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소학/예기]

나이 열 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나가서 공부하고, [남자아이의] 거처는 바깥방에서 하며, 글과 셈을 배우고, 비단으로 저고리나 바지를 해 입지 않으며, 예를 처음대로 따라 행하고, 아침저녁으로 어린이의 범절을 배우되 주로 간단하고 진실한 것을 익힌다.

[소학/예기]

스무 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비로소 예(禮)를 배우며, 갖옷과 비단옷을 입고 대하(大夏 : 하나라의 우임금이가 지은 음악) 춤을 출 수가 있다.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실행해 나가고, 널리 배우되 남을 아직 가르치지 못하며, 미덕을 마음속에 지니되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옛날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가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알거나, 말할 줄 알게 되면, 그에게 소학(小學)의 법도를 가르쳐 미리 교육을 시켰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지각이나 생각에 있어 아직 주장이 투철하지 못하므로, 바른 말과 지당한 의론으로 날마다 그 앞에서 얘기해야 한다. 비록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배우고 익히게 하면, 귀에 차고 마음에 가득하여 오래 가면 스스로 편안히 익혀져서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같이 되어, 비록 다른 말로써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장성하게 되면, 사사로운 생각과 이상한 호기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뭇사람들의 말들이 밖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소학/예기]

나이 서른 살에 아내를 갖고 비로소 남자의 할 일을 처리하며, 널리 학문을 배우고 친구를 공손하게 대하여 그 뜻을 본다.

[소학/예기]

나이 40살에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고 일을 대하여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발표하여,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

[소학/예기]

나이 50살에 명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벼슬자리에 나아가 정치를 맡아 보며, 나이 70살에 은퇴한다.

해 설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동아시아 유교의 전통이다. 이러한 태교와 가르치는 순서를 율곡 선생은 여러 경전과 서적의 글을 편집한 『소학』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식을 낳아 가르칠 때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가르친다."는 것은 왜 그럴까?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맹자가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친다는 역자교지(易子敎之)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대충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순서와 내용이 있다. 어릴 때는 기초적인 생활예절과 지식을 익히게 하고 점차 넓혀 나가게 한다. 특이한 점은 서른 살에 아내를 맞이하고 마흔에 벼슬길에 나간다는 점인데, 조선에서는 여기서 『소학』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서른 살 이전에 혼인한 사람들도 흔하고 마흔 살 이전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간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소학』이라는 책이 고대의 문헌을 모아 송나라 때 편집한 것이므로 『소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벼슬길에 나갔다가 임금의 명이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는 내용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다는 점이다. 벼슬이란 단지 녹(祿)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철학)을 펼치기 위함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을 출처관(出處觀)이라 하는데, 오늘날 장관이나 고위공직 자리를 주면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웬 떡이냐고 덥석 물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망신당하는 인사들을 보라. 출처관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생동안 행동해야 할 기본을 어릴 때부터 익혔던 것이다. 어떤가? 인성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

1. 『소학』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비단으로 저고리나 바지를 입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노는 습성을 생각해서 말해 보세요.

2. 『소학』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와 행동규범 그리고 옛사람들의 훌륭한 말과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어릴 때부터 몸소 익히도록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육적 관점에서 말해 보시오.

3. 옛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식을 남이 가르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모가 직접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등학교를 통하여 남이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그것이 못 미더워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남이 가르친다고 해서 남에게 맡겨버리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기 자식을 학교와 같은 공교육 기관과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 맡기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4. 본문에서 "(벼슬길에 나갔을 때 임금의 명령이)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그 명령이)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출처관(出處觀)을 비판해 보시오.

고자 부인임자 침불측 좌불변 입불필 불식사미
古者에 婦人妊子하면 寢不側하고 坐不邊하며 立不蹕하고 不食邪味하니라
(『소학/열녀전』).

한자 풀이와 해설

古 : 옛/者 : ~것/婦 : 아내, 부인/人 : 사람/妊 : 아이 배다/子 : 아이, 아들/寢 : 잠자다/不 : 아니하다/側 : 곁, 옆/坐 : 앉다/邊 : 가장자리/立 : 서다/蹕 : 한 발로 서다/食 : 먹다/邪 : 간사하다, 치우치다/味 :맛

*古者 : 옛날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은 모두 앞에 於가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미(邪味) : 몹시 야릇하고, 간사(奸邪)한 맛

해석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잠잘 적에 옆으로 눕지 않고 앉을 적에 그 몸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았으며, 서 있을 적에 한 발로 서지 않고 맛이 야릇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육년 교지수여방명 칠년 남녀부동석 불공식
六年이면 敎之數與方名하고 七年이면 男女不同席하고 不共食이라(『소학/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六 : 여섯/年 : 해, 나이/敎 : 가르치다/之 : 대명사/數 : 수, 세다/與 : 주다, 같이하다/方 : 방위, 사방/名 : 이름/七 : 일곱/男 : 사내/女 : 여자/不 : 아니하다/同 : 한가지, 같다/席 : 자리/共 : 함께/食 : 먹다, 밥

*의미상 주어는 부모이고 문장 전체의 동사는 敎이다.

*數與方名 : 수와 방위 이름. ~與~는 ~와(과)~의 뜻

*之는 敎의 간접목적어인 아이를 받는 대명사

*不共食 : 같은 그릇으로 식사하지 않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 :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뜻

해석

자녀의 나이 여섯 살이 되면 수(數)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않고 같은 그릇으로 식사하지 않았다.